

주 62시간 야근후 숨진 쿠팡 직원...대책위 "대안 만들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약 1년4개월간 심야근무를 한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 고(故) 장덕준씨의 유가족이 "쿠팡은 산재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바란다"고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장기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해 과로사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대책위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쿠팡 물류센터서 주 62시간 노동 후 사망

오후 7시~새벽 4시 근무...사인 심근경색

유족 "쿠팡, 산재에 책임있는 모습보여야"

"쿠팡 개선안 부실...야간근로 대책 부족"

대책위는 "최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는 물류센터에서 그나마 야간노동을 해야 생활비라도 벌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연속근로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일방적 임금 삭감안"이라며 "근로시간 제한에 앞서 임금 현실화, 고용안정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급 휴게시간, 유급휴일 확대 등 과로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씨의 어머니는 이날 "지난 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아들이 사망한지 4개월 뒤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당연한 결과를 받는데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과 산재 판정 과정에서 쿠팡이 보여준 비인간적인 모습이 떠올라 화가 난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는 장씨의 사망 원인을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장씨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에는 장씨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 업무시간이 62시간10분으로 기록됐다.

사망 2주전부터 12주전 사이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18분으로 측정됐다.

장씨의 업무시간은 입사 당시부터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오전 4시까지로 조사됐다.

장씨는 2019년 6월26일 입사했고, 주 6일 고정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1일 야간근무를 시작해 다음날 오전 퇴근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나왔다.

이후 쿠팡 측은 물류센터 근로 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쿠팡의 물류센터 근로 여건 개선방안은 부실하며 실질적 과로사 대책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속근로일수를 제한하는 조치는 임금삭감안에 불과하고, 장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저기준을 적용해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면 실질적인 과로사를 예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유급 휴식시간 외에 최소한 30분이라도 휴식시간을 주고, 5일 이상 연속으로 야간근무하면 1.5일 정도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폭설'에 광주·전남 육로·하늘·바닷길 통제

전남 7개 시·군 대설주의보...일부 지역 해제

시내버스 우회·단축 운행, 고갯길 곳곳 통제

여객선 운항 통제 지속...항공기 결항·지연도



사흘째 폭설이 내린 광주·전남 곳곳의 도로와 하늘·바닷길 통제 상태가 이어졌다.

18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적설량은 나주 15.7cm, 장성 11.7cm, 담양 11.1cm, 곡성 8.3cm, 광주 8cm, 영암 7.5cm, 강진 7cm, 진도 6.9cm 등을 기록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순천 영하 7.2도, 광양 영하 6.1도, 보성 영하 5.7도, 화순 영하 5.5도, 광주 영하 5.4도, 여수 영하 5.3도, 영광 영하 4.6도, 해남·고흥 영하 4.4도, 목포 영하 3.9도 등으로 나타났다.

목포·무안·진도·영광·함평·해남·신안(흑산면 제외) 등 7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광주와 나주·담양·장성·화순·장흥·강진·완도·영암 등 전남 8개 시·군의 대설주의보는 오전 9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밤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광주·전남 주요 도로에선 제설 작업이 펼쳐졌다.

광주시는 동문로·남문로·북문로·무진대로·빛고을로 등 도심 주요 도로 291개 노선(621km)에서 제설 작업을 벌였다.

무등로 (지산유원지 입구~원호사) 10.5km는 차량 통행이 금지됐다.

무등산 등지를 오가는 시내버스 19개 노선 90대는 우회 또는 단축 운행 중이다. 일부 노선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편 운행 중이다.

전남도도 주요 지방도·국도·고속도로 5513km 구간을 제설했다. 지방도 4200km, 국도 563km, 고속도로 750km 등이다.

경사가 급한 고갯길 ▲구례 성삼재(14km) ▲진도 두목재(1.5km) ▲진도 초평재(1km) ▲곡성 신봉재(6km) ▲곡성-구례 고산재(2.6km) 등 3개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하늘길·바닷길도 끊겼다. 광주공항은 김포·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12편이 모두 결항 또는 지

연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날 말까지 편성된 국내·국제선이 없다.

전남 서·남해 곳곳에 강풍·풍랑 특보가 내려지면서 목포·여수·완도 여객선터미널을 오가는 53항로 86척 중 33항로 45척이 항구에 발이 묶였다.

무등산·지리산·내장산·월출산 등 지역 내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도 대부분 통제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이후부터는 광주·전남에 눈이 더 쌓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오후부터 점차 교통 통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오전 중 그치겠으나, 내린 눈이 녹지 않아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교통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유나기자



유흥음식업 중앙회 "생존권 보장하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원들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적절한 손실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 미끼'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검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만나 2500만원 챙기려다 미수에 그쳐

충북 제천경찰서는 대한 대출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에 충북 제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강원도 홍천

군으로 이동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2500만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정부 지원금의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금융기관 사칭 전화에 속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타고 이동한 택시사기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쫓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